

## 전북도, K-푸드 세계화 전진기지 도약

### 정부 "전북 푸드테크 거점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새만금 헬프산업 특구 조성 AI 스마트농업 모델 확산 미식·관광 연계 산업화 추진

〈3〉전북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세계화의 전진기지, 농생명수도 전북전략 발표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스마트농업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중심 헬프산업(그린바이오) 전진기지 조성 △AI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융합 △미식·관광 연계 브랜드화 산업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K-푸드 수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2단계 확장을 통해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새만금을 헬프·종자·식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키우고,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새만금을 축으로 AI 기반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미래 농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주비빔밥·임실치즈·순창 장류 등 지역 자산을 수출 전략 상품과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 '먹는 관광'을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정부 4대 전략을 선도적인 실행 모델로 구체화하고 국가예산 사업과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176만㎡·총사업비 5,472억 원)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된다.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창업·R&D·제품화·수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K-푸드 수출 플랫폼 기능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전북도 'K-푸드' 메카 시동 정부는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새만금헬프산업클러스터. <사진=전북도>

와 공유공장 조성도 병행해 지역 청년이 전북에서 창업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메카 특구 1호' 헬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106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안전관리-추출-가공-수출까지 전주기 산업 체계를 완성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만금을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규제 특례와 국가 책임형 관리모델을 적용하고, 헬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이를 통해 헬프를 식품·화장품·의약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수출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 일원에는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273ha·1,738억 원)를 조성하는 한편 피지컬 AI 기반 로봇·드론 R&D를 유치해 생산 중심 농업을 넘어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장에 나

갈 방침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농업인 양성을 확대하고 AI 기반 미래농업 실증 거점 배치를 정부와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농업 RE100 및 전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로 재생에너지와 농업을 결합한 국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6공구)에 100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단지(총사업비 490억 원)를 조성해 청년류 유입을 확대하고 수출형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을 강화한다.

전주비빔밥·임실치즈·순창 장류 등 지역 대표 식품 자산의 수출 전략 상품화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의 K-미식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북 선점을 추진한다. 전통장류 소스 상품화 및 GMO-FREE 국산콩 전략 상품 개발을 병행한다. 미식·관광·특산주·농촌체험 자원을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과기부의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화·AI 기반 품질예측 푸드테크, 기후부의 스마트팜 탈탄소 전환·바이오에너지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전북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데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확산 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북 농업의 비전을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출발점이다"며 "전북을 K-푸드 글로벌 수출 허브이자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켜, 농업이 다시 희망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민주 전북지사 후보 경선 확정

### 공관위 "공모 후보 전원 경선" 경선 방식·일정 조만간 결정

더불어민주당 6.3 전국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경선 후보로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등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심사와 관련,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경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의혹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주지사 경선 후보도 문대립 전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현 지사·위성근 국회의원 등 3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원택 의원 등이 제기한 김지사의 내란 동조 및 방조 의혹과 관련 검증절차를 밟아왔고, 김지사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전북도의 도청 출입 통제와 언론 취재 제한 논란 등에 대해 "청사 폐쇄는 사실이 아니며 평상시 수준의 방호 조치였을 뿐"이라며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현 지사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앞서 이원택 의원은 김지사가 계엄당시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내용의 전북도의 국감 자료와 당시 공무원의 언론사 인터뷰 등을 근거로, 내란에 협력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이같은 내란 방조 의혹으로 인해 김 지사가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었다.

공관위의 이같은 후보 확정에 따라 내란 방조 의혹에서 벗어난 김지사는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갈 예정이고, 경쟁자인 안호영 이원택 의원도 경선 활동에 경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전북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 경선방법(당원의견 50%+국민 여론 50% 또는 당원의견 50%+선거인단 50%)과 경선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 김관영 지사 "현대차 투자 후속·AI전환 속도내야"

### 타운홀·현대차 후속조치 점검 공모사업 국회 협력 주문 지방선거 앞 공직기강 강조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 지사는 최근 타운홀미팅과 현대차 투자 협약과 관련, "대통령의 전북 전략과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 산업투자와 국가 정책이 맞물려 우리 도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인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 실행과 정책 연계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담당 부서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해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투자 협약은 단순한 기업 유



9일 전북특별자치도정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합동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치를 넘어 AI 제조혁신·데이터·그린수소를 연결하는 전북 미래산업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각 실국이 대통령 지시 사항과 중앙부처 검토 사항, 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처 공모사업들과 관련해 "한 병도 원내대표와 각 지역 국회의원과

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부부 기강 확립, 누수 없는 도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행정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 도 영농철 앞두고 2,947억 투입 농업용수 기반 강화

저수율 78.9%...평년 대비 104%  
가뭄 대비 용수 확보 추진  
배수개선 등 338지구 정비사업  
저수지 준설 저류량 30만톤 확보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도내 저수지 2,15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78.9%로 평년 대비 10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철 강수량 감소와 국지적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저수지와 관정, 양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8개 농업기반 정비사업, 338개 지구에 총 2,947억 원 규모의 사업비도 투입한다.  
먼저 침수 피해 예방과 배수 능력 개선을 위해 배수개선사업(69개 지구, 1,339억 원)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12개 지구, 320억 원)을 추진해 배수장과 용·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농경지 배수 환경을 개선한다.

노후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99 지구, 1,184억 원)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10개 지구, 12억 원)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22개소, 9억 원)과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 개발사업(14개소, 4억 원)을 추진해 양수장 설치와 농업용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확보 기반을 강화한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12개 지구, 77억 원)을 통해 농지 규격화와 용·배수로, 농로 정비도 추진해 농업 생산 기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14

개소에 67억 원을 투입해 준설을 실시하고 약 30만 톤의 추가 저류량을 확보하는 등 가뭄 대응 능력을 높인다.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저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 급수 체계 구축, 용수 절약 홍보, 단계별 가뭄 대응 매뉴얼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농업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업기반시설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타임스>

##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공약

출생아연 100만원 10년 적립  
부모 추가 납입 연 200만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경선후보는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 의원은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 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이다.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며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북도, 전국 첫 '자율편성형 보육교육' 도입...선택권 확대

보수교육 위탁기관 간담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개편  
기관별 맞춤 교육과정 운영

전북도는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선제 대응키 위해 도내 보수교육 위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일반 직무교육 운영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보수교육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유형 B(자유 편성형)' 교육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육 교육 운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형 A(표준 준수형)와 유형 B(자유 편성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북대는 유형 B(자유 편성형)을 도입해 도내 보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한다.  
기전대학,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4개 위탁기관은 유형 A(표준 준수형)를 적용해 국가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표준 기반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도내 보육교직원들은 자신의 교육 수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두 유형 모두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최대 12시간)를 포함하고 외부 인정 실적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로 바쁜 보육교직원들의



2025년 보수교육

<사진=전북도>

교육 이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총 1,770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

성보건의국장은 "다 지자체보다 빠르게 보수교육 개편에 대응해 도내 위탁기관과 소통을 마쳤다"며 "개편된 보수교육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오늘부터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 개최

도지사·교육감 행정 질문 실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정  
조례안 등 8건·간급 안전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전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

에는 김대중(익산1)·이수진(비례)·윤영숙(익산3)·오현숙(비례)·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김정수(익산2)·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들 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발의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전(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전은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공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내란 방조 책임 끝까지 묻겠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9일 "당원 및 도민들과 함께 내란 방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 심사결과, 3인을 모두 링 위에 올려 놓을 테니 당원 및 도민들께서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및 순응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의 바다와 들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서 햇빛과 바람이 기업을 끌어들이고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국제에너지도시 조성, 피지컬AI, 민생경제 실패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 농생명산업과 K푸드, K컬처, 새만금SOC 조기구축을 통해 강력한 전북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 전주시 'AI 추진위원회' 개최·AI 선도도시 구현 가속

## 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향 '피지컬 AI-J밸리' 추진협의회 구성 등 논의

전주시 'AI 추진위원회'가 AI 선도도시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9일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위한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가 열리며 전주시 AI 산업 육성 방향 및 주요 과제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전주시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위원인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전주시 AI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눴다.

특히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향 △주요 전략 과제 △피지컬 AI-J밸리 추진협의회 구성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내용 등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향 주요 전략과제로



9일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위한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가 열리며 전주시 AI 산업 육성 방향 및 주요 과제 등이 논의됐다 <사진=전주시>

△피지컬 AI 프로젝트 연계 △전주 신성장산업 고도화 전략 △전주 특화 서비스 AX 전환 전략 △전주 도시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피지컬 AI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지컬AI-J밸리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는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주시 AI 정책 추진의

컨트론타워로 시는 그동안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 시는 지난해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기술검증(PoC) 사업에 참여했으며, AI 신뢰성 실증 공모 대응 등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전북 가상융합산업 거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AI 전문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피지컬 AI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재 양성, 기술 연구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AI 산업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50대 남성 장기증새 생명 선물

### 심장폐-간신장 기증 4명의 말기 환자에 삶의 희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말기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우모(52) 씨는 지난 2월 21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큰 슬픔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고인은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

증해 장기기증을 기다리던 말기 환자 4명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했다.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은 못 하셨지만 평소 성격대로라면 분명 기증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증한 장기가 말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결정을 해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우리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운영

11월까지 매일 오전·오후 각 2회 관람객에게 재미와 흥미 더해

전주동물원은 관람객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자연과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존중의 가치 확산 및 자연환경·사람·동물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긍정적인 이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동물생태해설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회씩 총 4회 5세 이상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마철인 7-8월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전주동물원은 지역사회 내 '학교 밖 학습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태 감수성과 환경 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민 기자

# 대한민국 판소리 정수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 대장정

## 4월 11일까지 우진문화공간 매주 토 '판소리 완창무대' 개최

소리의 고장 전주는 판소리의 정수 '판소리 완창무대'를 올래도 펼친다.

전주시와 (재)우진문화재단은 오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14시

우진문화공간에서 '2026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는 올해 10회째이다.

올해는 △김장미(동조제 수궁가) △김정훈(김세종제 춘향가) △조정규(박봉술제 적벽가) △양혜원(강산제 심청가) △

박성우(박목주제 흥보가) 등 탄탄한 실력 소리로 5명이 무대에 오른다.

시는 이번 전주 판소리 정수 완창무대를 통해 아나리와 창, 발림이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감으로 판소리 진면목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완창을 마친 소리꾼에게는 감사

의 의미를 담아 '판소리 완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는 무료이며 관람 희망 시민은 전주티켓박스(www.jiticketbox.com)를 통해 사전 예매한 뒤 공연을 관람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비상 대비 민방위 시설' 점검 나서

## 미국-이란 간 불안정한 국제정세 대비 비상대비태세 강화

전주시가 최근 지속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전주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시설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206개 민방위 대피시설 △6개 경보시설 △37개 급수시설 등 총 249곳이다.

점검을 통해 △대피시설 내·외부 관리

상태 및 적치물 여부 △민방위 시설 안내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여부와 훼손 상태 △경보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운영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와 함께 신속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방위

시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지속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도시농업 체험농장 회원' 모집

##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체험농장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관)는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 회원을 모집한다.

체험농장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참여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전주

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오는 25일 오후 3시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 과정은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체험농장 회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제공되는 기초 농사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 체험농장에는 지난해 '오감 이야기 생태텃밭' 기반 조성이 완료됐으며, 올해는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조정 및 작물 사재 등 마무리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정소민 기자

이 공간은 오는 5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으로, 시는 시각·촉각·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 속에서 농업을 즐기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립교향악단 '왕의궁원 프로젝트' 공연 마련

### '전주의 역사와 세계 음악 잇는 문화예술 무대'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2일 1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시의 주요 정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영원의 하모니-천년을 넘어' 공연은 전주의 문화도시 비전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예술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왕의 궁원'은 전주의 주제가 시민이라는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도시의 방향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연은 전주가 축적해 온 시간의 흐름과 음악의 역사를 함께 조망하는 무대로, 관객들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문화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세계 음악계에서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르가리타 발라나스(Margarita Balanas)가 지휘를 맡고,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 협연자로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 프로그램은 △베토벤 '현악시곡, 작품.124'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1919년 버전)' △파가니니 '비올라 협

/정소민 기자

주곡(기타 사중주 작품.15편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마단조, 작품.67, 신세계로부터'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공연장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공연 관람과 함께 전주시의 문화정책과 도시 비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수자원·환경 등 15개 분야 80여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은 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

으로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028년 3월 까지 2년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하천 기본계획수립, 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 계획수립, 하천 공사·설계에 대한 자문·심의를 수행하며, 모집 분야는 수자원, 환경, 도로, 토목

구조 등 총 15개 분야이며, 80여명이 선발된다. 모집 접수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

/정소민 기자

리단장은 "이번 제3기 기술자문위원 모집에 정령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기술자문위원회는 관내 하천관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경찰-유관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 '26년도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추진

전북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농촌진흥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등 6개 기관이 '26년도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도가 초고령사회(고령 인구비율 20% 이상)에 있으며 도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2월 기준, 24년 24.3%, 25년 25.5%, 26년 26.6%)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24년도부터 3년간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도 참여해 도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고령자 신체적 특징에 맞는 교통안전수칙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이동면허면허를 통한 65-74세 고령자 면허 갱신, 이동형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시력 검사 등 인지지각체형, 전통휠체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실버가 안전조명 등' 설치 등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매일 2, 4주 화요일을 '어·화·통통 DAY(어르신과 화요일에 교통을 소통하는 날)'로 지정해 소 기관이 함께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해 정기적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0일 화요일 완주에서 첫 '어·화·통통 DAY'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농협, 300억원 투입 유가 인상 최소화

## 면세유·농협주유소 할인 등... “지원책 지속 마련 할 것”

농협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농협 자체 지원 300억원을 즉각 투입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협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300억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사로 즉각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원은 앞으로 한달간 농민들이 소비하는 물량

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한달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지원 5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300억원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보



<사진=농협>

인다.

강효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하고,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정소민 기자

## 중소기업 취업하면 최대 24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우수한 기능기술을 보유한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능대회 입상 인력 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24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능인재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능경기대회, 상업경진대회, 영농학생축제 등 기능대회에서 금상·은상·동상·우수상·장려상 입상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

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우수한 기능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회 입상 경력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집 규모는 2명으로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음 참여자 모집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농촌 희망장학금 180만원 전달

농촌지역 학생 교육비 경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이 9일 하서농협(조합장 기세원)에서 농업인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과 농촌지역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차세대 리더가 되길 희망하는 '농촌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성훈 총괄본부장, 기세원 조합장, 조상환 부안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차 선발전 대표 학생의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지원된 이번 장학금은 전북지역 383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180백만원이 지원됐다.

전북농협은 지난 2021년부터 1501명의 농촌 학생들에게 총 671백만원의 장

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학업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중학교 진학선물이 돼 기쁘다”며 “농협의 지원을 잊지 않고 농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인품을 갖는 인재로 키우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농촌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인분들과 올바른 품행을 성실한 학교생활을 실천하는 자녀들을 응원한다”며 “우리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촌 복지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 전북TP, 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국방기술이전형 2개사 수출형 상용화 1개사 선정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6년 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위산업 분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전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방산 수요에 연결해 사업화 성

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3억8천만원이며 국방기술이전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 2개사와 수출형 방산 제품 상용화 R&BD 지원 1개사를 선정한다.

국방기술이전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은 최근 3년 이내 국방기술 또는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확장형 사업화를 지원하며, 선정 규모는 2건으로 과제당 9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수출형 방산 제품 상용화 R&BD 지원은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

했거나 사업기간 내 수출계약 체결이 예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상용화와 수출 연계 R&BD를 지원한다.

선정 규모는 1건으로 과제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방위산업 연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방산 시장 신규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전북 방산 산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력지원체계까지 적용 분야를 포괄해 기업이 보

유한 기술의 적용처를 넓히고 기술사업화에서 상용화와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규택 원장은 “전북이 보유한 기술 기반을 방산 수요와 연결해 기술 자립과 부품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협의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농림축산업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협의회'를 연다.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종자용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현황(국립종자원) 사료용 유전자 변형 생

물체 안전관리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검사 체계 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협의회가 끝난 후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 온실과 슈퍼컴퓨팅센터, 작물표현체연구동 등 관련 시설을 둘러 본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이기종 과장은 “관련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과학 기반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기술 개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농진청>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소민 기자

# 소상공인 정책, 이제 맞춤형 알림으로 바로 확인

## 중기부 '소상공인 알림톡' 서비스 시범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9일 중기부가 보유한 소상공인 DB(약 134만명)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신청·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소상공인 DB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업종·규모·이력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그간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공고 중심으로 운영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은 정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를 활용해 정책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24' 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인에 동의한 가입자 약 81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업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24 DB를 기반으로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3.12)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여성, 청년, 소공인 등 정책 대상별 지원사업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내하고, 중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연계·안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소

상공인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기부가 축적한 소상공인 DB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출발점으로 중기부 사업은 물론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

의 통합 안내 체계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 미국 사로잡은 'K-푸드' 애너하임에서도 빛나

aT, 14개 업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참가해 총 270건, 3200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NPEW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500여 명의 식품 기업이 참가하며, 매년 6만명 이상의 바이어와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유망

농, 자연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미서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무대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14개 우수 K-푸드 수출업체와 함께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스낵, 음료, 면류, 소

스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 시식과 함께 유자·배·수정과 슬러시 음료 시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들은 “K-푸드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한인 교포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넘어 북미 주류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라 평가했다. 특히 건강식품, 소스, 스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식품 소비 시장으로 꼽히며 향후 시장 성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미국 식품서비스 시장은 2024년 약 1조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32년 약 2조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북미 시장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aT 전 기간 수출품목이사는 “앞으로 체험 중심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추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익산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익산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특별 출연 했으며 총 55억원 규모의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부터 상담접수를 시작하는 익산

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익산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체결하고 5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특별 출연 했으며 총 55억원 규모의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 유성동 예비후보 “달빛체육관 100곳 지정”

## 학교형 등 나눠 운영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활성화...6호 공약 발표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유 예비후보는 “달빛체육관 100곳 지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6호 공약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청소년 권장 운동량



유성동 예비후보

충족 비율이 세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 소규모학교는 체육관이 없고, 과대·과밀학교는 학생 수 대비 운동장 크기가 작아 학생들 신체활동에 제약이 큰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시간 이후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쉽도록”을 언급했다.

유 예비후보는 “달빛체육관 100곳은 지역 아동·청소년 누구나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전인성 성장을 돕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달빛체육관에 관해 △학교형(50곳) △폐교형(5곳) △학교복합시설형(20곳) △지역형(25곳)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폐교형에는 야구장과 수영장 등 큰 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복합시설형은 교육부 선정 지역 외 교육청이 추가 선정하며, 지역형은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사

설 체육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학교체육 활성화 역시 강조하며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준비 △트램폴린 운동 확산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화 △건강체력 교실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건강증진학교 및 IT체육교실 운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 확대 등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전북선관위 ‘선거교육’ 구축

### 주권자 인식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선거교육 기관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주권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경범훈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9일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주권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 미래를 여는 나의 권리’를 비전으로 선거의 의미와 원칙을 이해하고, 자

율과 책임의 균형을 갖춘 시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새내기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및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교원 대상 참정권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운영 등 3개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참정권교육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유아교육내실화-안전한체험학습 조성

## ‘다운누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등 신규사업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 내실화 및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다운누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외부 보조인력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사립유치원 30개원을 대상으

로 운영하며 1개원당 35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유치원은 △유아 연령·발달, 지역환경, 기관의 교육철학 및 누리과정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내 공간 및 물적 자원(기관, 자연환경, 기자재, 물품 등)을 연계·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교육(지원)청, 지자체, 타부처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유아대상 교육·보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연계활용 등에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유아 안전보장과 교직원 부담 경감 위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외부보조인력’ 운영 사업도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 시 외부보조인력 지원으로 유아 안전을 강화하고, 교직원 교육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수요 조사를 통해 외부 안전요원이 필요한 유치원에 한해 연 2일 이내 지원하

며, 안전관리·응급상황 대응·유아 생활지도·인솔교사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숙박형에는 유아 40명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의무 배치하고, 1일형에는 유아 40명당 1명의 보조인력 배치를 권장한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사회교육 수요 완화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스포츠클럽 문지담, 태권도 청소년 국대 선발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한 타슈켄트 2026세계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지난 5일-9일까지 경북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63kg급에 출전한 문지담 선수는 작년 대회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 중 -63kg급에 랭킹 1위로 출전권을 획득했으며 일정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참가한 타슈켄트 2026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전주스포츠클럽 소속 문지담(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1년, 교장 전병철)선수가 담당하게 2026년 4월에 개최되는 타슈켄트 대회에 출전권을 획득,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문지담 선수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출전할 수 있는 타슈켄트 2026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월등한 기량, 순발력, 여유있는 경기 운영으로 32강에서 광주체고 김이은 선수에게 라운드 2:0승으로 이기고, 16강에서는 금정고 최수희 선수



<사진=문지담 선수>

에게 라운드 2:0승, 8강에서 설악고등학교 김이현 선수에게 라운드 2:0승, 결승1차에서 무주고등학교 윤술선수에게 라운드 2:0승, 결승 2차에서도 윤술 선수에게 라운드 2:0승이란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경기를 운영해 대망의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장정철 기자

##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방과후 토요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학생교육문화관(관장 박성현)은 초·중·고등학생 및 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 방과후·토요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3일부터 19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설 과목은 △학생교육 ‘펜싱 광광! 신나는 검술’ 20개 과목 △학생 독서교육 ‘책이 키운 리더의 씨앗’ 7개 과목 △학생 수영교육 ‘수영 자유형’ 12개 등 총 39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창의융합 △교과학습 등 총 6가지 분야로 운영된다.

또 올하는 전북도교육청 10대 과제 중 하나인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아빠랑 엄마랑 책놀이터’ 등 6개 과정을 추가 신설했다.

박성현 관장은 “상반기 문화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 전북 역도선수들, 전국대회서 맹활약

전북 역사(力士)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3회 전국준거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하이

트진로와 진안군청, 순창군청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대거 수확했다.

먼저 여자일반부 57kg급에 나선 하이트진로 신지혜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며 3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팀 장은비 역시 53kg급에서 인상

과 용상, 합계 모두 2위를 기록했다. 남자일반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진안군청의 김정민은 75kg급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2위를 차지해 3개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정민과 같은 체급에 나선 순창군청의 장서진은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3개의 동메달을 차지했다.

95kg급에 출전한 순창군청의 황수민은 인상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정철 기자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 10분이상 미사용 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20% 절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교체 하면 70%적립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양치질, 면도할때 물 잠 귀서 38% 에너지 절전



### 정읍시, 숨은 맛집 SNS 인증하면 지역화폐 쓴다

정읍시가 지역 내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후기를 SNS에 인증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돈내산 탐방기 이벤트'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한 식당 후기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 개인 SNS에 공유해 신뢰할 수 있는 맛집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 제과점을 이용한 뒤 촬영한 인증 사진과 해당 월에 결제한 영수증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벤트 신청은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인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2만원 이상일 경우 5000원, 5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의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음식 문화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임산부 600여명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군산시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48만 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월 평균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받는 수준으로, 임산부 가정의 식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 6,196만 원 전달

익산시는 9일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2025년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1억 6,196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진현욱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장, 김중관 익산시청장 등이 참석했다.

적립기금은 익산시와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가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보조카드 사용금액의 0.1~1%를 적립해 마련된 금액이다.

세부내역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1억 1,203만 원, 공무원 복지카드 2,835만 원, 보조카드 2,158만 원 등 총 1억 6,196만 원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휴카드 적립기금 누계액은 19억 4,103만 원에 달한다.

진현욱 지부장은 "익산시와의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매년 제휴카드 기금 적립은 물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함께해 주고 있는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금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미래차 산업 전환 '속도'

### 총 6개 분야 51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27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 전환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3년부터 군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국비 13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6억 원 규모의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상용 모빌리티 분야 제조 혁신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체계 구축, 성능 평가 장비 확충,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지역 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OPEN-LAB 프로젝트 △전장품 성능 평가 △혁신제품 사업화 △제품 고급화 △ONE-POINT 멘토링 △xEV 특화 제조공정 개선 등 총 6개 분야 51

건 규모의 기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은 전동화와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차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스마트그린산단 및 연계 산단 입주기업은 전북군산 소부장 지원센터 누리집(www.jumpcenter.org)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신성장산업과 또는 전북군산 소부장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 익산시, 청년 동아리 지원 나서

#### 24일까지 모집·7개 팀 선정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청년 성장 한 뼉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동아리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청년 동아리의 운영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문화·예술, 봉사활동,

취·창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총 7개 팀을 선정해 팀별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청년 동아리를 24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동아리는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 성장 한 뼉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내달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

### 1시간 내 최대 2회 23일부터 시범 운행

정읍시가 오는 4월 1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안정성과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현장 탑승 점검을 마쳤다.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교통과 직원들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주요 구간의 소요 시간과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고려해 환승 대기 시간의 적정성과 노선 간 배차 시간 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

폈다.

이번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는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전용 환승 시스템을 구축과 차차 단말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버스에서 내린 뒤 60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를 탈 경우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정읍시가 지난 5~6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마쳤다.

<사진=정읍시>

단, 무료 환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통장 회보 게재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시내버스 내부에도 환승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말일까지는 시범 운행 기간을 갖고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이학수 시장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가계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환승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노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통합돌봄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돌봄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도를 자세히 파악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2026년 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62,891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00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시는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가생활 유지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조사가 최선을 다하고, 군산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고령층 퇴원 후 돌봄 공백 막는다

### 지자체-병원 연계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익산시가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령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8개 요양병원과 4개 병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익산병원 △동산병원 △수사랑병원 △익산제일병원 △벨라비스요양병원 △수요양병원 △실로암사랑요양병원 △엔젤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우석노인요양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익산미소요양병원 등 12곳이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대상자 발굴과 통합돌

봄 신청, 건강 상태 및 돌봄 필요도 평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협력,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퇴원 단계부터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순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글로벌 청년캠프' 경제효과 성과

### SNS 200만회 노출 1억 6천여만원 파급효과

정읍시가 겨울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 운영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가 1억 6000여만원 이상의 종합 경제 파급효과를 내며 체류형 관광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1·2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40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포함해 총 80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작한 체험 관련 SNS 게시물은 총 685건, 누적 노출 수는 200만

회를 돌파하며 겨울철 지방 중소도시인 정읍을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에 널리 알렸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직접적인 지역 환원 금액은 약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에 지출된 체험비 2000만원, 버스 임차 등 교통 유류비 1000만원, 공공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한 숙박비 1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두 기수가 14일간 지역 식당과 시장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식비 4500여만원(기수당 약 2200여만원)을 비롯해 기념품·특산물 구매, 교통·생

활·관광 연계 소비 등을 합친 직접 소비 유발 효과는 총 6000여만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방송·언론 보도 노출로 인한 환산 가치 약 6000만원을 더하면 이번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1억 6000여만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이번 캠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 일정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계절 내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청년플-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 협력 추진

####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 구축

군산시 청년플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플)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플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천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질 창업을 시험해볼 수

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등이다.

청년플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플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안군,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준비

## 간부회의서 군정 전반 기본사회 관점 점검 새만금 정책 대응 강조

부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준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정 전반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모색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회의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책임지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서는 기본사회 관점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표된 새만금 개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을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제시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만금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 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 농업, 관광 등 군정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고창군립미술관, 역사적 ‘첫 삽’

## ‘지붕 없는 생태 미술관’ 지향...내년 개관 목표

전북 고창군이 9일 고창읍 도산리 일원 현장에서 ‘고창군립미술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기공식에는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및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예향 고창의 새로운 거점이 될 미술관의 시작을 축하했다.

고창읍 도산리 869번지 일원에 들어설 고창군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전시실을 비롯해 유물을 직접 보며 소통하는 개방형 수장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창작 스튜디오, 군민들의 쉼터가 될 문화 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립미술관은 인근 고인돌 박물관, 운곡습지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지붕 없는 생태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고창군립미술관 조감도 <사진=고창군>

전시관을 넘어, 군민의 삶과 자연이 예술로 승화되는 고창만의 차별화된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립미술관은 예향 고창의 자부심을 완성하고 군민의 일상을 예술로 풍요롭게 가꾸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외형이라는 그릇

보다 그 안을 내실 있는 콘텐츠로 가득 채워 고창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명소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군은 철저한 안전 관리와 공정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전년도 카드 매출액 0.4%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김제시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며,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카드수수료는 별도의 ‘김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이전에 지원받았더라도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susanna9128@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카드 결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체류형 관광 유도 이벤트 추진

## 오는 5월까지 숙박비 최대 17만원 지원

부안군은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안, 하루 더 살아보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며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여행 전 ‘부안사랑인’에 신규 가입하고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뒤 참여할 수 있다.

승인 후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안사랑인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숙박비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숙박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박의 경우 최대 7만원, 2박 이상은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숙박

비를 지원한다.

숙박과 함께 가맹점 이용을 연계해 지역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확산되도록 설계했다.

참여자는 숙박 외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가맹점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SNS 인증을 통해 지역 홍보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실질적인 여행 혜택을 받고 지역은 소비 확대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는 구조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방문객을 일회성 관광객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인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이번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안사랑인 가맹점 이용 후 인증 상품권을 증정하는 ‘영수증 속 부안 사랑 인증’, 축제·행사 연계한 현장 가입 이벤트 등 후속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을 찾



‘부안, 하루 더 살아보기’ 이벤트 <사진=부안군>

는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선발

## 오는 18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오는 18일까지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을 모집 선발전이라고 밝혔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기본 신청 대상은 ‘선발공모 연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1순위 선발요건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당해연도 수료(예정)생’, 2순위는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다.

이번 선발 규모는 2026년 6월말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총 4구획(과채동 2구획, 복합동 2구획)의 임대팜 입주자를 선발해, 임대기간 최대 3년, 임대료는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약35만원/년/1인)를

기준으로 한다.

선발 방법은 서류(30%), 필기(30%), 면접(40%)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25일 4개 혁신밸리에서 동시에 진행해, 서류평가·면접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임대팜 신규 입주자를 확정·발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김제시 스마트유통과를 문의하면 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김제시 임대형 스마트팜은 20개월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실 경험과 경영노하우 습득 및 창업 자금 확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농업의 인재가 될 예비청년농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재)고창군장학재단, 고3 100명에게 운전면허지원금 지급 완료

(재)고창군장학재단이 ‘1인1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사업’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비 2차분 지원금으로 10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관내 학생 및 청년 역량강화 차원에서 기사·기능사 자격증과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면허 지원금’은 전체 3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1차분을 지급한데 이어 면허취득 시점이 연말을 넘어가는 고3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3월초 2차분을 지급해 총 100명의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취득을 함께 축하했다.

‘기사·기능사 분야’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접수 결과 단기간에 109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됐으며, 예산 범위에 따라 69명을 선발해 총 2000만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재단은 자격증 취득이 취업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 경제적 제약없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은 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신춘공연 ‘더 보컬리스트’ 19일 개최

## 고창문화의전당서 공연

고창문화의전당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신춘공연 ‘더 보컬리스트’ 알리&정인 콘서트’를 연다.

고창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색 장인’ 알리와 정인의 콘서트 ‘더 보컬리스트’가 오는 19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된다.

알리는 2005년 데뷔 후 ‘365일’, ‘지구개’, ‘평평’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독특한 음색과 압도적인 고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 5월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발표하고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정인은 2023년 리쌍 1집 ‘Rush’의 객원보컬로 데뷔, 독보적인 음색과 탁월한 감정 표현을 갖춘 보컬리스트로 ‘나는 가수다2’, ‘불후의 명곡’, OST 등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고미술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본격 추진

## 취약계층 주거안정망 강화

김제시는 2026년 저소득 자가기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며,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지붕보수 △창호 교체 △도배·장판 교체 △단열 공사 △급수·배수 및 난방 설비 개선 등이다. 특히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LH주거복지팀과 협력해 대상 가구의 주택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보수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만 넘어 시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복지 상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소는 산기경로당에서 진행됐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 체크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건강 측정과 함께 평소 면사무소에 궁금했던 복지제도가나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각종 복지서비스와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보였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복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립도서관 ‘도서관 아카데미’ 시민대상 11개 강좌 운영 시작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9일부터 ‘2026년 상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1개 강좌가 상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실버인지 책놀이 지도사 1급’과 ‘초등 책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영 강좌는 △브런치 작가되기 △문인화, △그림책 심리여행 △시니어 북튜버 △시어 △시와 수필 △즐거운 인문학 등으로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서관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접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조사원 모집

고창군보건소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을 모집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고창군보건소, 원광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2008년부터 만 19세 이상 대상으로 표본가구 900명을 추출해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관련 특성을 파악해 체계적인 보건사업과 지역보건요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이며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개인인인증서 사용 가능자)로 업무 경력자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우대한다.

2026년, 올해 조사기간인 5월 16일

~ 7월 31일까지 고창군 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된 주거용 주택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 건강 수준과 의료이용, 그리고 건강관련 생활습관 등에 대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원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시된 조사원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유명수 보건소장은 “고창군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660-87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2027 국가예산 1조6천억 확보 시동

### 발굴 보고회서 신규 75건 등 논의 총사업비 1조 6787억 규모 수소·방산·문화등 성장사업 발굴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9일 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주재로 202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완주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3차에 걸쳐 발굴된 75건, 1조 6,787억 원 규모의 사업이 보고됐으며, 수소·방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체육, 농업·농촌 활성화, 재해예방, 생태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완주 수소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1,000억 원) △대용량 수전해 자동화 평가센터 구축사업(400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500억 원) △노후거점단지 경쟁력강화사업(1,401억 원) △노후주택개발원 설립(450억 원)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253억 원) △화산 외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230억 원) 등이다.

향후 군은 발굴된 사업의 부처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조서를 보강하고, 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

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 군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발굴된 신규사업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6년 국가예산 5,62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완주=김명근 기자

## 남원시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공모 선정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추진 안전물품 유류비 등 지원

남원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43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사업’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고정된 사무실 없이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 공간 조성 및 복지 대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동노동자 권의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청년일자

리센터’ 공간 일부를 이동노동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센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난방 시설, 안마의자, 헬멧 살균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해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종사자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헬멧, 장갑 등 안전물품 구입비 △유류비 △운송수단 정비 및 수리비 등이며, 영수증 제출 시 실비로 지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 이서면, 야쿠르트 손잡고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완주군 이서면이 지난 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택균, 소미례), hy한 국야쿠르트 전주혁신점(점장 김용란)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취약계층 24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음료 지원을 넘어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위기 징후 포착 시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즉각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예방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가 함께 이웃을 살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택균 공동위원장은 “행정과 민간기업, 협의체가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란 hy한국야쿠르트 전주혁신점장은 “건강음료를 전달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이웃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 순창군, 스마트 기기 활용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 65세 이상 참여자 220명 모집 맞춤형 건강코칭 6개월 진행

순창군은 3월 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2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늘건강’과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계 등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허약이나 만성질환 위험이 있거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업 참여자에게는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기기가 지급되며,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과 기기를 활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원 전문인력의 상담과 건강 코칭을 통해 6개월 동안 다양한 건강 미션을 수행하며 건강생활 실천을 이어가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3-650-5218, 526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 나선다

### 실질 거주·생활 실태 점검 조사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천여 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실질적 거주 형태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등록상 가구 구

성과 실제 거주 현상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지원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인 방문과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 확인,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며, ‘스마트돌봄플러그’와 ‘AI 안부전화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10만 인구’ 넘어 지속 가능 성장 박차

###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논의

완주군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정책 방향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완주군 2026-2030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6명, 군의원 및 인구·청년·복지분야 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 심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분석, 출산·양육·교육·일자리·정주환경 등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제시됐다. 또한 아동·청년·고령층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권역별 지역



<사진=완주군>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 원탁회의와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과 정주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10만 인구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과 정주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 완주군, 거동불편 어르신 재택의료 강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예산회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이 예산회의원과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주관 ‘제4차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예산회의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24년부터 이어온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고 지역 내 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평소 살던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도록



<사진=완주군>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산회의원은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의료 서비스와 지역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예산회의원으로 직접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부터 진료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근 기자

## 순창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138대 지원

### 총 2억 3천만원 예산 투입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대상

순창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2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38대의 노후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또

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온남원공동체’ 13개팀 활동 본격화

### 협약 체결 공동체 활동 추진 마을자치·협력문화 확산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안상연)는 지난 6일, ‘온남원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된 13개 팀과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향후 협력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선정된 공동체들을 소개하고, 사업 운영 및 예산 사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병행하며 내실 있게 진행됐다.

올해 온남원공동체 공모 사업에는 총 23개 팀이 접수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팀은 나눔 및 돌봄, 마을 가꾸기, 환경보전, 마을 소통 활성화, 공동체 경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영아꿈부모회’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에 나서며, ‘좋은날’은 손뜨개를 활용한 친환경 거리미술 활동으로 도시미관 정화에 힘쓴다. 또한 ‘단아보’는 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의 백일상, 돌상을 지원하고, ‘굿바이스토어’는 제로웨이스트 거점을 운영하며 분리수거 교육과 자원 활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상연 센터장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치치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공동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약 3.7% 세액 할인

순창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3월 연납제도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다.

연납 신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650-1346)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민중평등 임실군협의회, 정기회의... '한반도 평화공존'

민중평등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4시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견수렴, △2026년 임실군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좌석을 원탁 형태로 배치하고 분과별 토론 및 발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자문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분과별 토론에서는 자문위원 1인당 50명 이상 인터뷰를 목표로 한 개인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제언 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염상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은 서로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한국의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 이웃돕기 성금 110만원 기부

한국의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는 9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10만 원을 기부했다.

고난추 무주군지부 회장은 "시나브로 스며들고 있는 봄기운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무주를 대표하는 맛과 정성, 나아가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무주군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는 지역 외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핵심 창구로, 2024년부터는 성금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주민 의견 수렴 나서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읍·면 이장회의 순회 설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되는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3월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 방문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를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6월 중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전필빈 기자

## 임실군,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가속

### 읍면 사업설명회 종료 '햇빛소득마을' 공모선점박차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읍·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10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마을 이장과 주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참여 절차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마을단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적정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우리 마을 어느 필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현재 정부의 세부 사업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후보지 발굴부터 인허가 검토, 사업추진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의견을 정부사업지침 수립과정에 적극 전달해 정부와 마을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설명회 이후 사업참여 의사를 밝히는 마을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차 수요조사 결과 임실읍 금성리 치즈마을 등 30개마을이 참

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군은 향후 공모신청전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희망마을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초 신설된 전담 조직(TF팀)을 중심으로 단순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익 모델을 설계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임실군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침 확정 즉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농촌 주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발전사업 허가, 법인 설립 등 농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행정 절차를 밀착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참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 '전북제사 1970' 청년 복합 문화공간 재탄생

###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1억 예산 투입 유희공간 활용 로컬 편집숍 운영

무주군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청년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내 청년 정착과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핵심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주군에서 청년마을 사업을 참여하는 단체는 '무주그린'으로, 무주읍 내 옛 제사공장 부지에서 운영 중인 '전북제사1970'의 유희공간을 청년 주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무주, 잇다'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역 내 청년들이 직접 공간 조성부터 상품 기획, 판매까지 주도하게 된다. 특히, △로컬 편집숍 운영, △무주특화 관



무주군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내 청년 정착과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사진=무주군>

광상품 개발, △청년·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 개최 등 3대 핵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눈길을 끈다.

'무주 그린'은 '상설 로컬 편집숍' 운영을 통해 무주군의 농특산물과 지역 자원의 전시·판매를 거점화하고, 디지털 포장(천마빵·양갱), 우산, 마그넷 등 무주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제작할 예

정이다.

또한 청년 판매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정기 베품시장,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회, 전통문화 체험 등의 청년·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춘송리고분군 학술대회 개최

### 보존·활용 방안 논의 기념물 지정 기반 마련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 학술 성과와 행정 실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단순히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컸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전북 '제2차 지역개발계획' 전략사업 발굴

### 치즈산업 등 3대 전략축 설정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 중인 '제2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전략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전북자치도가 향후 10년간('28~'37년) 추진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군은 지역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은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중심으로 △치즈산업 고도화 △반려동물 특화산업 확대 △속령호 관광 활성화를 3대

전략축으로 설정하고, 경제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순 개발이 아닌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종합 발전 전략계획으로 산업·관광 분야뿐 아니라 의료·돌봄·교육 기반 확충, 생활 SOC 정비, 고령친화 환경 조성 등 기본 정주권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발굴해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실현 가능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별하고, 기존 미착수 사업은 재검토하는 등 실행력 중심의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

을 발굴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임실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라며, "치즈산업과 반려동물, 속령호 관광이라는 임실의 확실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군의 역점사업이 지역개발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상향

###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장수군이 3월부터 12월까지 장수사랑상품권 선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섰다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장수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유지하고 한도 내에서 1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을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을 구매할 경우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10% 할인 대비 1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혜택이 제공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나서

### 주요 서식지 환경정화 활동 서식지 인근 마을주민 참여

무주군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3곳, 다발생지역 5곳 등 주요 서식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마을별 주민 20여 명이 동참해 페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잡목, 하천변 생활 쓰레기 등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이종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이번 정화 활동은 무주군의 제1 자원인 반딧불이를 지키기 위

한 것으로, 주민들이 앞서서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식지 보호에서 반딧불이 개체수 확대, 자연특산물 무주 브랜드까지 상승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30회를 맞는 반딧불축제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통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개체 확산을 위한 연구와 서식지 조성, 보호 사업 추진, 인식확산 등에 힘써 반딧불이의 고장다운 면모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장수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2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8대, 4등급 차량 44대, 건설기계 2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 다.

또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장수군에 6개월(최종 소유기간 포함)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총중량 3.5t미만 5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 4등급 경유차는 차량가액의 70%가 지원된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2차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다만 총중량 3.5t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5등급 차량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 강진면 주민자치위원회, 2026년 사업계획 논의

###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등

임실군 강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병준)는 지난 5일 강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배분 기준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추진 방향 설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던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농악, 드림 프로그램을 2026

년도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프로그램 중 헬스는 제외하고 건강제조 프로그램을 새롭게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주민 건강 증진 원외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비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민자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비봉면 주민자치위, '홍도화 꽃길' 단장**

완주군 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병희)가 최근 봄철을 맞아 지역 경관 개선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비봉생활체육공원과 원봉산 마을 도로변 일원에서 홍도화 전지 및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겨우내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정리하고 병충해를 사전에 차단해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 15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요 도로변과 비봉생활체육공원 일원에 식재된 홍도화 구간을 중심으로 전지 작업과 약제 살포를 병행했다.

최병희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일중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비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계절별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지역 경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심원면지사협, 건강밥상 밀반찬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 심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기 위해 '건강밥상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년도도 진행되어 대상 가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심원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매주 목요일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병재 심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밀반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과 복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청소년 사랑의 밥차' 지역민 '환호' 뜨거워**

**한국아름다운공동체 주관 지역사회 '사랑'·'응원' 전달**

최근 6일 밤 평화동 주공 1차 뒷편 희망광장에서는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이 시작되며 지역민들의 뜨거운 온기가 솟구쳤다.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공동체 두재균 이사장은 누구든 쉬며 먹을 수 있는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을 지난 6일 평화동 평화동 일대에서 시작했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 주요 목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의 심리를 제공하며 무료식사제공이 특징이다.

더불어 '청소년 사랑의 밥차' 핵심 원칙은 '선별 없는 개방'이다.

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60여명과 주민 150여명 그리

고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청소년 사랑의 밥차' 봉사에 참여한 무료봉사자 9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이 자리 통해 나훈군 자문위원장은 "나인 효과가 생기면 정착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동네 아이라면 누구든, 배고프면 와서 먹고 쉬다 가면 된다"고 말했다.

참여한 해성고 한 학생은 "평소 챙겨주기 어려웠던 친구에게 음식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욱 좋았다"고 전했다.

전주시는 현재 한국아름다운공동체와 MOU 체결을 준비 중이며,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한 외부 지정 기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아름다운공동체는 이 사업



을 전주시 전역, 나아가 전북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두재균 이사장 그는 직접 평화동 일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유치하며 등곳길 안내장 배포, 현수막 40여장을 동네 곳곳에

붙이는 등 현장 홍보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평화동 주공1차 뒷편 희망광장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장수 번암면지사협, 새학기 맞아 입학생에 운동화 지원**

장수군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장욱)는 새학기를 맞아 지역 내 초·중학교 입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첫걸음, 운동화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번암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새 학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설레 가득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종이쿠폰 형태로 제공돼 학생들이 보호자와 함께 매장을 방문해 각자 원하는 디자인과 브랜드의 운동화를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획일적인 물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취향과 필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참여 가정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장욱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 하늘에 청소년 꿈 띄우다! 남원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7일 오전 심수정 일원에서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꿈과 희망을 나누는 '제25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청소년육성회(회장 박정민)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연에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하늘에 띄우며, 조상들이 연을 통해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했던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소방서 임직원들, 무주군에 1,221만원 기탁**

**'앞으로도 믿음직한 119가 되겠다'라는 뜻 전제**

무주소방서 임직원 일동은 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221만 원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임정욱 무주소방서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키는다는 사명감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이미 무주가 제2의 고향"이라며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지키는데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소방서는 지난 2023년 7월 개서 이후 각종 재난·재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향사랑 무주사랑' 실천에 동참(298명)하며 지금까지 3,121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 금강피씨,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은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금강피씨(대표 서상준)가 지난 6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농농인재육성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강피씨는 철근콘크리트 용·배수관,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해수소통구, 우수 빗물 저류조 등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문

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도로·하천·농업기반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강피씨는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읍시청 호남동문회 '청호회', 장학금기탁**

정읍시청 내 호남중·고등학교 졸업 공직자들의 모임인 '정읍시청 호남동문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며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6일, 청호회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영원 회장은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진 기자



##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 4가지 참여방법

- 1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 2



손씻고 종이타월 대신 개인손수건사용
- 3



쇼핑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사용
- 4



일회용 종이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一事一言〉



기억에서 자본으로... 전북 '백년의 시간'을 경영하자

김관춘  
주필

전북연구원이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전북 백년유산 이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것은 100년의 시간을 전북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전략적 제안이다.

2031년 대한민국 현대 축제의 효시인 남원 춘향제가 100회를 맞고, 2033년 '서해안의 진주' 변산해수욕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는다. 이는 우연한 연대기의 나열이 아니라, 전북이 '시간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100년은 한 세대를 넘어 네 세대를 있는 시간이다. 개인의 기억(Memory)이 사회가 합의한 역사(History)로 굳어지는 상징적 경계이기도 하다. 1931년 권번 기생들의 자발적 기화로 시작된 정경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춘향제의 서사는 공동체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한다.

1933년 문을 연 변산해수욕장은 바다를 '생업의 공간'에서 '휴양의 공간'으로 인식 전환시킨 근대적 여가문화의 출발점이었다. 이처럼 백년유산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 문명사적 이정표다.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산업·경제, 생활·건축, 교육·종교, 문화·지역 분야의 100년 유산 목록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섬진강댐과 만경대교, 임피역과 해방길, 전주 여고와 원불교 익산 성지, 군산의 제빵 문화와 전주 행원애 이르기까지, 2026년부터 2035년 사이

전북은 '백년의 황금기'를 맞는다. 이 자산을 흠어진 점이 아닌 선과 면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시간여행 벨트'라는 공간 전략이 완성된다.

국내외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 루르 지역은 폐산업 시설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재생해 산업유산을 관광 자산으로 바꾸었다. 일본 가나자와는 100년이 넘는 상업과 장인 문화를 '노포(老) 브랜드'로 체계화해 도시 품격을 끌어올렸다.

서울 역시 근대 건축물 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를 되살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석'을 통해 시장과 연결했다는 점이다. 기억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JB-100 인 증제'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기억의 자산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백년의 살롱, 춘향제 리브레팅, 다크투어리즘의 예술화는 가치의 재창조 전략이다. 여기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결합해야 한다.

100년 전 레시피를 복원한 '백년 빵집', 근대 사진기술을 재현한 '백년 사진관', 일본식 가옥과 한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다. 행정이 공간을 열고, 청년이 콘텐츠를 채우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백년유산은 '합한 경제'로 진화한다.

백년유산을 단지 '관광 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자존감과도 직결된 문제다. 100년을 이어왔다

는 사실 자체가 곧 신뢰의 증표이며, 세대 간 약속의 결과다. 이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효과는 더욱 크다.

초·중·고 교과 과정과 연계한 '우리 고장 백년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구술사(口述史) 프로젝트를 병행한다면 청소년들은 지역을 떠나야 할 공간이 아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 터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기억의 전승이 곧 인재의 정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백년유산은 탄소중립과 도시재생이라는 시대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존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보존·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설보다 환경 부담이 적고, 원도심 상권을 회복시키는 촉매가 된다. 근대역과 옛 양곡창고,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나 문화예술 레지던스로 전환한다면 과거의 흔적은 미래 산업의 실험실이 된다. 이는 단순한 미화 작업이 아니라 공간의 서사를 입힌 고부가가치 전략이다.

특히 2030년대에 집중될 100주년 이벤트는 '전북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규모 캠페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1회성 축하 행사가 아니라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설계해, 해마다 다른 주제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축적해야 한다. 예컨대 2031년은 '축제의 100년', 2033년은 '바다와 휴양의 100년'이라는 식으로 연속성을 부여하면 국내외 관광객

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 차원의 통합 추진이다. 개별 시·군의 기념행사로 흩어지면 상징성은 약화된다. 2030년대에 집중된 100주년 이슈를 하나의 거대한 시간 축으로 묶어야 한다. '자유에서 공유로, 기억에서 자본으로'라는 비전 아래, 전북 백년유산 조례 제정과 전수조사,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전북은 늘 새로운 성장동력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어찌된 담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100년을 버텨온 공간과 사람, 이야기 속에 축적된 신뢰와 정통성은 어떤 인위적 브랜드보다 강력하다. 백년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자본이다.

이제 전북은 시간을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시간을 경영하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100년의 기억을 든든한 공간에 쌓아두는 데 그치지 말고 꺼내어 투자하고 순환시키는 공공의 성장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의지다. 백년유산은 시간이 만들어주지만, 그것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은 지금 세대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때 전북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의 성지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의 선도 사례로 우뚝 설 것이다.

사설

전북지사 경선 확정, 비전과 정책 대결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확정했다. 현직 지사인 김관영과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 구도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경선 방식과 후보 확정 문제가 정리되면서 전북 정치의 향방을 가를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번 경선 구도는 무엇보다 '전원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후보를 모두 경선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정 후보를 사전에 배제하되보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전북도의 12·3 비상계엄 대응 문제와 이른바 '내란 동조' 의혹 역시 중앙당 검증 절차를 거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공관위가 이를 공천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정치적 판단의 최종 기준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맡겼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로써 경선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지사는 지난 임기 동안의 도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안 의원은 동부권 기반과 국회 활동을 통한 정책 역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확장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후보 모두 각기 다른 강점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경선 과정에서는 조직력뿐 아니라 도정 비전과 정책 경쟁력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자리해 왔다. 그만큼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본선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당내 경선의 공정성은 곧 지역 정치의 신뢰와 직결된다. 만약 경선이 특정 계파나 조직의 힘겨루기로 비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정치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구조적 위기가 겹쳐 있다. 새만금 개발,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다.

또한 이번 경선은 전북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 미래 산업과 청년 정책 등 구체적인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경쟁이야말로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승자는 한 명이지만 경선의 진정한 목적은 전북을 이끌 최적인 후보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선출된 후보만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선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지역 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전주향교소장안영책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서각류, 판목류  
·지정일 - 2005년 12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관)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 / 파재규**

다시 그리움은 일어  
봄바람이 새 꽃가지들 흔들 것이다  
흠바람이 일어 가슴의 큰 슬픔도  
꽃잎처럼 바람에 물릴 것이다  
진달래 꽃 편지 무더기 써갈긴 산언덕 너머  
있었던 누운가의 돌무덤가에도  
이슬 맺힌 들메꽃 한 송이 피어날 것이다

옷통을 드러낸 아낙들이 강물에 머리를 감고  
오월이면 머리에 꽃을 한 송이의  
창포 꽃을 생각할 것이다  
강물 세에 쉽게 드러난 징검다리를 밟고  
언젠가 돌아온다면 임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보리 꽃이 만발하고  
마 가는 가시내들의 젓가슴이 부풀어

이 땅 위에 그리움의 단내가 물결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곁을 떠나가 주렴 절망이며  
정경다리 선들선들 밟고 오는 봄바람 속에  
오늘은 잊혀진 봄 슬픔 되살아난다  
바지게 가득 떨어진 꽃잎 지고  
쉬엄쉬엄 돌무덤을 넘는 봄.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 출생. 전남대 국문학  
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

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  
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

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 타임스  
정확한 뉴스, 바운 스피크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연구개발 성과 가시화 확대!



## 바이오소재 연구에서 산업화까지 바이오생태계 완성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공동 연구개발 적극 추진 특히 지속 확대 및 기업 기술이전 상용화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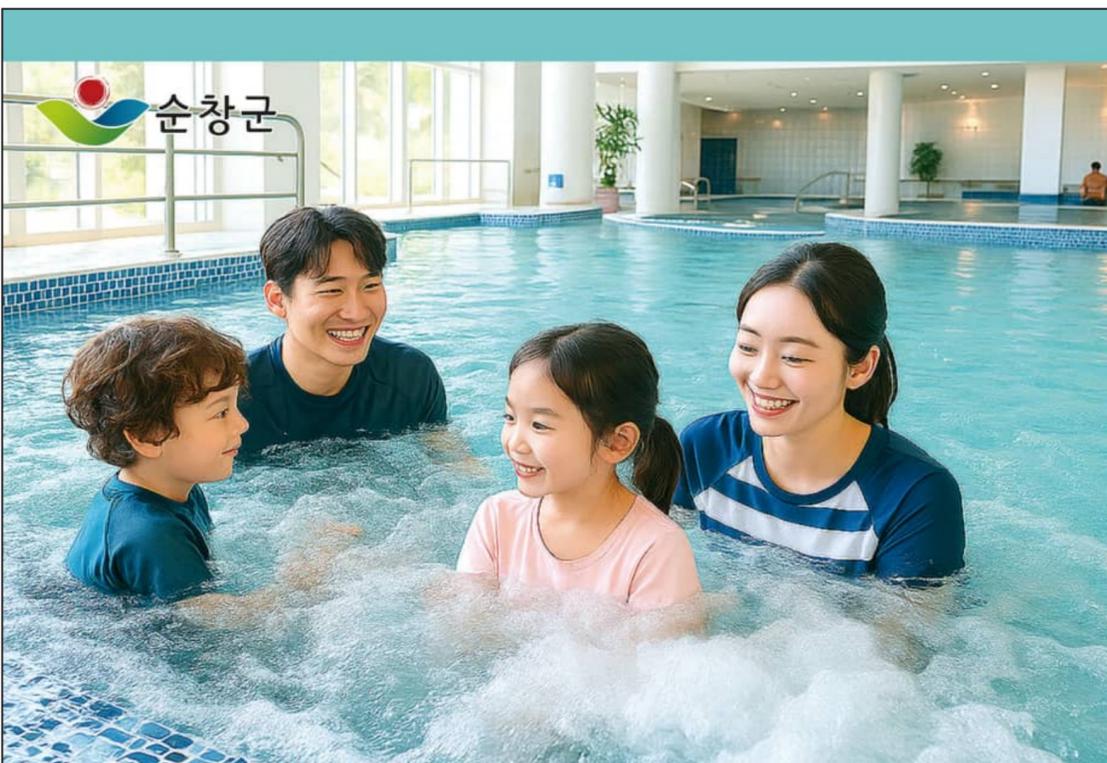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 고유의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연구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해 6월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성장동력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이라는 비전을 공식 선언하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비전 선포 이후 남원시는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가공·인증평가, 기업 네트워킹,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전략적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단순 연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업 활동과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의 핵심에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지리산권 자연식물 72품목을 대상으로 정밀 효능평가와 성분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특허출원 19건(등록 15건), 해외 특허출원 2건, 기술이전 1건 등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화장품 원료 표준화 50건, 국내외 화장품 원료 등재 77건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197건의 제품이 시

장에 출시되는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지역 자원 발굴 → 효능·성분 검증 → 원료 표준화·등재 → 특허·기술이전 → 제품 출시·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상용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연구 결과가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을 낮추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기업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기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창업기업 ㈜에스비씨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2024~2025)을 통해 초음파 가공기술을 활용한 오미자 추출물 기반 탈모 완화 제품을 공동 개발했다. 이를 통해 출시된 '오미주 탈모샴푸' 등 제품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2023년 대비 15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미양행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화장품 관련 제조시설 및 공장 추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남원시 첨단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연구(2024~2028)를 추진하며, 최근에는 베트남 수출을 위한 샘플 선적을 완료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연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자원식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원료와 제품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연구원의 효능평가·성분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기획부터 원료 개발, 제형 설계까지 단계별 검증을 지원받음으로써 기능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과 글로벌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생강나무 추출수'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모공 개선 조성물에 대해 미국과 베트남 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연구원은 단순 연구기관을 넘어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와 함께, 확보된 특허 기술과 표준화 원료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 및 제품 상용화를 촉진해 지역 기업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남원시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식물 발굴부터 효능 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맞춤형 기술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남원을 K-바이오 소재·화장품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HEAL FROM WATER

##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강천힐링스파

온 가족이 천혜 자연의 물을 즐긴다.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